

“봄이다, 함평 가자”...26일~내달 6일 나비축제

봄꽃 30종 80만본·산호랑나비 등 나비·곤충 23종 25만마리 한자리 콘서트·문화공연·나비날리기·함평추억공작소 등 풍성한 즐길거리

“봄이다, 함평 가자”

함평군이 꽃과 나비가 어우러져 봄의 설렘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초대한다.

‘제26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천 생태습지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최고의 봄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축제로 지정된 함평 나비대축제는 올해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 축제의 대표 나비는 알록달록한 줄무늬가 특징인 ‘산호랑나비’로, 함평군의 상징인 호랑나비는 강한 번식력과 활동력으로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의미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메리골드 등 30종의 다채로운 꽃 80만그루와 산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23종 25만마리의 나비·곤충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행사 첫날인 26일 오전 9시 ‘나비날리기’ 행사가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 주무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개막 축하 공연으로 가수 박지현, 자원의의 무대가 펼쳐진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일원에는 야외 나비날리기 체험, 전통민속놀이, 슬라임 체험, 나비 가면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매년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나비날리기는 올해도 유아·어린이 동반

가족(회당 50팀)을 대상으로 매일 5회(오전 10시·11시·오후 1시30분·2시30분·3시30분) 실시할 계획이다. 잔디광장 주무대에서는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나비콘서트 등 문화 공연이 진행되며, 생태습지에서는 아기 동물과 친구되기, 젓소목장 나들이 체험, 나비순수건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이 무료로 운영된다.

또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명 때리가 좋은 곳’도 마련했다. 생태습지 일원에 10여동의 텐트가 설치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비·곤충생태관에서는 살아있는 나비 곤충 일대기와 실내 나비 날리기 체험이 진행되며 나비곤충표본전시관에서는 세계 희귀 나비 곤충 표본과 곤충 VR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함평추억공작소’도 눈길을 끈다. 엑스포공원 내 금호아시아나관 옆에 지상 2층, 연면적 2223㎡ 규모로 신축한 함평추억공작소는 1970~1980년대 함평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당시 실제 함평의 생활상을 축소·재현해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이곳 전시장 1층 입구 공간에는 최근 금값 상승으로 화제를 모은 황금박쥐상이 자리하게 된다. 매년 봄과 가을 축제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공개됐던 황금박쥐상은 함평추억공작소로 이전하면서 매일



함평군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엑스포공원 주무대 앞 지름 10m, 높이 14m 규모의 꿈나무, 희망나무 조형물체 웨이브사피노아 화분 4000개를 투입, 꽃탑 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상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KTX가 함평역에 정차한다. 용산역 출발 하행선(일 3회)과 목포역 출발 상행선(일 3회)이 각각 함평역에 정차하

며, 군은 함평역과 축제장(엑스포공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셔틀버스 탑승객에게 함평 농산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 함평 나비대축제는 가

족들을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힐링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국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첫 지원...최대 100만원

외상거래로 인한 경영 손실 대비 3000만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나주시가 외상거래로 인한 경영 약화에 대비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나주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분사 또는 사업장이 나주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기업 신용도에 따라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재권 회수가 가능하다. 앞서 전남도에서 지난 2022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나주시 관내 수혜기업은 극히 일부인 5곳 이하로 파악됐다.

나주시는 보험료 지원을 올해 신규 시책으로 확정하고 자체 재원으로 6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료율의 10%를 우선 할인 후 산출한 보험료에서

나주시가 60%, 기업 한 곳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 보험료가 110만원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10만원을 선할인하고 나주시가 6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자부담 4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보험료 예산은 3000만원으로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지원 신청과 문의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증센터 또는 대구신용보증센터본점으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외상거래 위험 감소로 신규 거래처 발굴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성군 ‘동화나라 베베나축제’ 준비 한창

6월29일 남평리 램프공원 일원 축제 현장 베베나 1만그루 심어

장성군이 ‘마을 축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동화면 ‘동화나라 베베나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장성군은 최근 동화면 남평리 램프공원에 베베나 1만그루를 심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상협(회장 조성구)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복), 사회단체연합회, 동화면 공직자 등 130명이 베베나 심기에 동참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꽃 관리에 나선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동화나라 베베나축제’는

오는 6월29일 남평리 램프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베베나(Verbena)는 6월부터 9월까지 피어내는 다년초 식물로 ‘버들마편초’라고도 불린다. 꽃말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주세요’, ‘가족의 화합’, ‘단합’이다.

축제는 ‘동화 속 첫 만남, 설렘’이라는 주제로 사진 촬영, 소풍 공간을 조성하고 클래식·거리 공연 무대를 펼친다. 동화 미술 전시회와 동화책·장난감 중고거래장터, 아이스크림·허브차 판매 공간, 양초 만들기 체험 등도 운영한다.

김현중 장성군수는 식재 현장을 찾아 “동화면의 매력과 재미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

종합안내소~감태바위 왕복 고인돌 유적 탐방버스 화순군 24·18인승 2대 운행

화순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고인돌 탐방버스’를 운행한다.

지난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고인돌 탐방버스는 도곡 고인돌유적종합안내소와 준양 감태바위 구간을 왕복한다.

약 1시간 정도 걸리며, 운행하는 2대(24인승·18인승) 차량 중 18인승 1대에는 교통약자 관람 편의를 위해 승·하차 승강기 시설을 설치했다.

탐방버스를 운행하는 구간에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일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탐방버스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기간(28일까지)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운행한다.

5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당일 을 제외하고 정기 운행한다.

탐승권은 도곡과 준양고인돌유적종합안내소 2 곳에서 살 수 있다. 요금은 성인 2000원, 청소년



화순 어린이들이 ‘화순 고인돌 유적 탐방버스’를 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화순군 제공>

1000원,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무료이다. 화순군 고인돌사업소 관계자는 “이제부터 고인돌 탐방버스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를 관람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화순 고인돌 유적이 지닌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26만명 찾아...4명 중 1명은 10~30대

지난해 17만명보다 53% 늘어

강진 봄꽃 축제를 보러온 관광객의 4명 중 1명은 1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군동면 남미리 특사 일원에서 열린 ‘1회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에 25만9000명이 찾았다고 집계했다.

이는 같은 기간 평년 관광객 17만명보다 52.9% (9만명) 많은 수치다.

강진군은 이동통신사 유동인구를 분석해 통계를 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나뉘대별로 보면 10대

이하 10%, 20대 6%, 30대 9%, 40대 14%, 50대 22%, 60대 이상이 39%를 차지했다.

강진 지역민을 제외한 관광객의 연고지를 살펴보니 전남 43%, 광주 26%, 경상권 6%, 경기 6%, 서울 5% 순이었다.

네비게이션 ‘티맵’에서 ‘강진 남미리’를 검색한 건수는 올해 축제 기간 7401건으로, 전남지역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2833건(5위)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강진군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드론(무인 비행기)을 활용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 분석했다. 우회도로와 임시 주차장

을 만들어 체증에 대응했다.

강진군 4차산업혁명 활용추진단은 축제 기간 일어난 통신 폭증·장애 현상에 대해 내년에는 5G 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축제 성공과 홍보의 이면에는 전남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4차산업혁명 활용 부서를 둔 강진군의 선제 행정과 도전의 결과”라며 “내년 축제는 더 활발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세세한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 장흥읍 교촌리에 있는 장흥향교 전경. <장흥군 제공>

장흥군 11월까지 향교·서원 유산 활용사업

장흥군이 지역 향교와 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자·흥, 나는 향교’는 문화재청이 공모한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됐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향교·서원에 담긴 정신문화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대표 문화유산 활용자원으로 육성해 활용 방안을 세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장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흥향교를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선비 정신과 한국적 문화를 품은 체험,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는 4개로 구성됐다.

대표 행사인 ‘토끼야 용궁에 벼슬가자’는 장흥 출신 이청준 작가의 판소리 동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미래 세대들이 예절교육 체험을 통해 선비정신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 시민성을 성장시키는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